

슬기로운 여름나기를 위한 내 차의 여름맞이 준비

글. 신나라 참고. 자동차365

해가 길어진 만큼 새로운 계절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낀다.
한편 일기예보의 '낮 최고기온' 숫자를 볼 때마다
이번 여름의 무더위는 어떻게 이겨낼지 걱정이 많을 것이다.

자동차 역시 혹심한 고온에는 고생이 많아진다.
올여름을 내 차와 함께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산뜻한 봄 날씨가 슬금슬금 물러가는 것을 보니 여름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실감이 난다. 세계기상기구(WMO) 등의 관측에 따르면 2023년도 기록 이래 가장 더운 해였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기후변화로 이번 여름 더위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전기차 차주라면 배터리를 자극하는 폭염과 장마가 기다리는 여름에는 차량 관리에 더욱 민감해질 터. 우리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전 서둘러 옷장과 이부자리, 냉장고를 정리하며 여름을 대비하듯이, 자동차도 여름 전 간단한 점검을 통해 본격적인 무더위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



타이어를 점검해주세요

지면과 맞닿는 타이어는 날씨가 급격하게 변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자동차 부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면이 뜨거울 때는 타이어도 훨씬 쉽게 닳는 데다, 노후화된 타이어는 고무의 유연성이 줄어들면서 곳곳이 갈라질 수 있어 고열에 파열될 위험도 있으며, 기온이 높아지면 타이어 펑크 사고가 급증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또 비가 오면 도로와 타이어 사이에 생기는 수막으로 인해 제동거리가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타이어 상태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에어컨 필터는 교환했나요?

자동차의 마스크라고도 할 수 있는 에어컨 필터. 차량 내외부의 불순물을 걸러 주는 에어컨 필터는 미세먼지와 일교차가 심한 봄을 지나는 동안 쉽게 오염되기 쉽다. 에어컨 필터는 다른 차량의 배기가스 속 유해물질도 막아주는 존재인 만큼, **운전자와 동승자의 건강을 위해 여름이 오기 전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주시자.

필터 교체는 교체용 부품만 있다면 간단히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필터를 교체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엔진 오일의 잔량과 교체 주기를 확인해주세요

엔진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엔진 내부의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도맡은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이 하는 일 중에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것도 있다. 특히 **고온에서 장시간 주행할 경우, 엔진 오일의 점도가 낮아지는 등 엔진 오일 자체에도 성능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계절에 맞추어 엔진 오일을 교체**하기도 한다.

차를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주라면, 엔진 오일의 잔량 확인에도 도전해보자.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시동을 잠시 걸었다가 끈 뒤 보닛을 열면 엔진 오일 주입구 주변에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레벨 게이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점검 전 내 차의 엔진 오일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차와 내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 것이다.



트렁크를 말끔하게 정돈해주세요

트렁크는 세차나 정비 시에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보고 지나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차체가 무거워지면 자연스럽게 연비도 떨어지고, 브레이크 등 주행 시 자주 사용하는 부품에도 부담을 주게 되니 불필요한 짐이 있다면 정리해두도록 하자.

특히 날씨가 풀리며 야외 활동을 자주 즐기게 되었다면 **휴대용 가스버너,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이나, 캔 음료처럼 고온·고압에서 폭발하기 쉬운 물건을 트렁크에 놔두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

노면과 직사광선의 자극을 그대로 받는 자동차는 더위에 매우 민감하다. 찌는 듯한 더위와 많은 비가 기다리는 계절을 앞둔 시기인 만큼 자동차도 미리 더위나기를 준비한다면 녹록지 않은 계절을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 TS

“내 차의 배터리는 내가 관리하자!” <마이배터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정기검사 시, 전기차의 배터리 상태도 진단할 수 있다. 무더운 여름에는 배터리 부하가 더욱 커지는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배터리 점검을 잊지 마자.

